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음 7월 14일) 제23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행 중단된지 4년 만에 KTX 김제역 정차 확정

국토부, 일일 4회 운행중
용산~서대전~목포 구간
노선에 김제역 정차 결정
16일 승차권 발매 예정



13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온주현 김제시장(왼쪽)과 김중회 국회의원(가운데), 박준배 김제시장이 "시민의 염원이었던 KTX의 김제역 정차가 이뤄졌다"며 환영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김제시민의 염원이었던 KTX의 김제역 정차가 지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행이 중단된지 4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 졌다.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일일 4회(상행 2회, 하행 2회) 운행중인 용산~서대전~목포 구간 KTX 노선에 김제역 정차운행을 확정 발표했다.

운행시기는 추석 수송 마무리 이후인 9월 16일부터 운행할 예정이고 이달 16일부터 승차권을 발매할 예정이다.

김제역은 2004년 KTX가 개통된 이래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 개통까지 김제, 완주, 부안 등 전북 서부지역 50여만 명의 KTX 이용을 책임져 왔으나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김제역 정차가 중단돼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정부선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했고 김제시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열차 주요 고객인 노인들을 위한 교통 기본권 보장 실현과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과 같이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박준배 김제시장은 KTX의 김제역 정차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수차례 방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공사장에 까지 건의했다. 또한 김중회 국회의원(김제, 부안)은 국토부 제2차관과 같이 만나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국회 교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KTX 김제역 정차가 소멸위기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정차 촉구한 발언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해 중앙부

**박준배 김제시장 정부 건의 등
민·관·정 노력 '결실' 맺어
KTX 이용객 수요 대처 가능해
소득증대·지역경제 활성화도**

처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시민요구를 전달해 왔고 부처 장관이 참석한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KTX의 김제역 정차를 건의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2회씩이나 만나 김제시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준배 김제시장,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TX 김제역 정차 추진 위원회의 활동과 장성군과의 공동대응도 KTX 김제역 정차 재개 결정에 큰 역할을 했고, 특히 KTX 김제역 정차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 기관·사회단체의 75회 릴레이 캠페인 전개와 도민, 출향인과 함께한 7만6천여명의 서명운동 등 홍보 활동이 주효했다.

그동안 KTX를 이용하려면 김제역에서 열차를 타고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익산까지 차로 이동한 후 익산역에서 KTX를 이용해야 됐으나, 이번 김제역 정차로 인해 김제시민과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큰 편을 달게 되었다.

KTX 김제역 정차가 재개됨에 따라 전북 서부지역인 김제, 부안, 완주, 전북혁신도시 등 이용객의 KTX 접근성을 제고하고,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김제시 내 1500만명의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 개발과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등으로 증가하는 KTX 이용객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0만명 지평선 산업단지과 김제 전자생명 산업특구 등 기업지원 여건이 강화되어 활발한 기업유치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우선 김제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져 무척 기쁘고 가슴에 벅찬 감동을 느낀다"며 "그동안 KTX 김제역 정차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한 김중회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제시 인구가 26만이던 옛 응운군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김제시는 물론 부안군, 완주군,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복절로 8월 15일자 신문 쉽니다.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및 성과나눔 간담회가 13일 완주산단 대륜산업에서 열린 가운데 승하진 도지사와 김중회 삼성전자 사장,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이 업무협약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혁신 '가속도'

전북도, 유관기관·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기업들과 간담회 갖고 공장 상생공정 견학

전북도가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

13일 완주산단에 소재한 대륜산업(대표 이주협)에서 승하진 도지사를 포함 기업 및 유관기관 대표자가 모여 업무협약 체결, 간담회와 함께 생산공정 견학 등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제조현장 스마트화 비전제시 및 기업·유관기관 현장간담회이은 이번 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주도의 자율적 스마트 공장 확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소개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더불어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가진 경험·노하우·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협업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역량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확산돼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게 된다.

전북도를 포함한 7개 업무협약 기관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공동 추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자금(융자) 지원, 스마트공장 수요기업 사전진단 및 분석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홍보 및 성과 확산 등 5개 주요 협력과제 이행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무엇보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협력모델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하반기에 시·군 순회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배움터 설립 등 제조업 스마트화 여건 조성에 더욱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는 올해 81개사 구축을 목표로 그간 도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에 도비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거점기능을 수행토록 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구축 목표수를 상향 조정하여 공급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비 지원 또한 20~30%로 확대하여 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승하진 도지사는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고 4차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지원 확대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제조혁신의 키워드인 스마트공장이 산업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유관기관들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집성 기자

본사 인사

▲전문선 무주주재 기자
명: 국장

(8월 14일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